



N개의 도시사랑법



[내가]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2023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험실은
“김해LAB_N개의 도시사랑법”이라는 부제목처럼
도시를 사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권역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하고, 행동하는

[내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5개,
도시 단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 및 제시하는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3개
총 8개의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CONTENTS

01	10	도시문화실험실 사업 안내
02		[내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18	김해시 꿀사모 환경지킴이~ 꿀벌! 살리기
	30	대동그린숲 대동숲마을 탄소중립 탐사 프로젝트
	41	삼방팔방 삼방팔방 영화상영회 (할매요~ 같이 영화 함 보입시다)
	49	엠탐조 더 맑은 해변천
	59	한뼘연구소 부모와 자녀가 한뼘 성장하는 소통놀이터
03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74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84	쫄물딱놀이터 문화 다채로움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94	하나래 우수관은 바다의 시작!
04	108	도시를 사랑한 우리의 기록
	112	나만의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05	116	2023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하며
	116	담당자 한마디

01

도시문화실험실 사업 안내

ABOUT 도시문화실험실

추진과정

2020~2023



운영주체

책임연구원 & 시민연구원

운영방식

권역별 실험실 5개 운영



운영주체

책임연구원 & 시민연구원

운영방식

권역별 실험실 7개 운영

의제별 실험실 3개 운영



운영주체

시민연구원

보조지원

프로젝트매니저,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운영방식

주민자치형 실험실 2개 운영

행정협치형 실험실 1개 운영

시민의제발굴형 실험실 5개 운영



운영주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그룹 & 시민단체

보조지원

퍼실리테이터

운영방식

[내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5개 운영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3개 운영

시민이 문제를 찾고, 시민이 해답을 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 곳곳에 당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주체적인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일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도시문화실험실>

사업목적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2023 도시문화실험실

도시를 사랑하는 N가지 방법 총 8개 운영

- [내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김해시 꿀사모 | 대동그린숲 | 삼방팔방 | 엠탐조 | 한뼘연구소
-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김해동네고양이협회 | 쫄물딱놀이터 | 하나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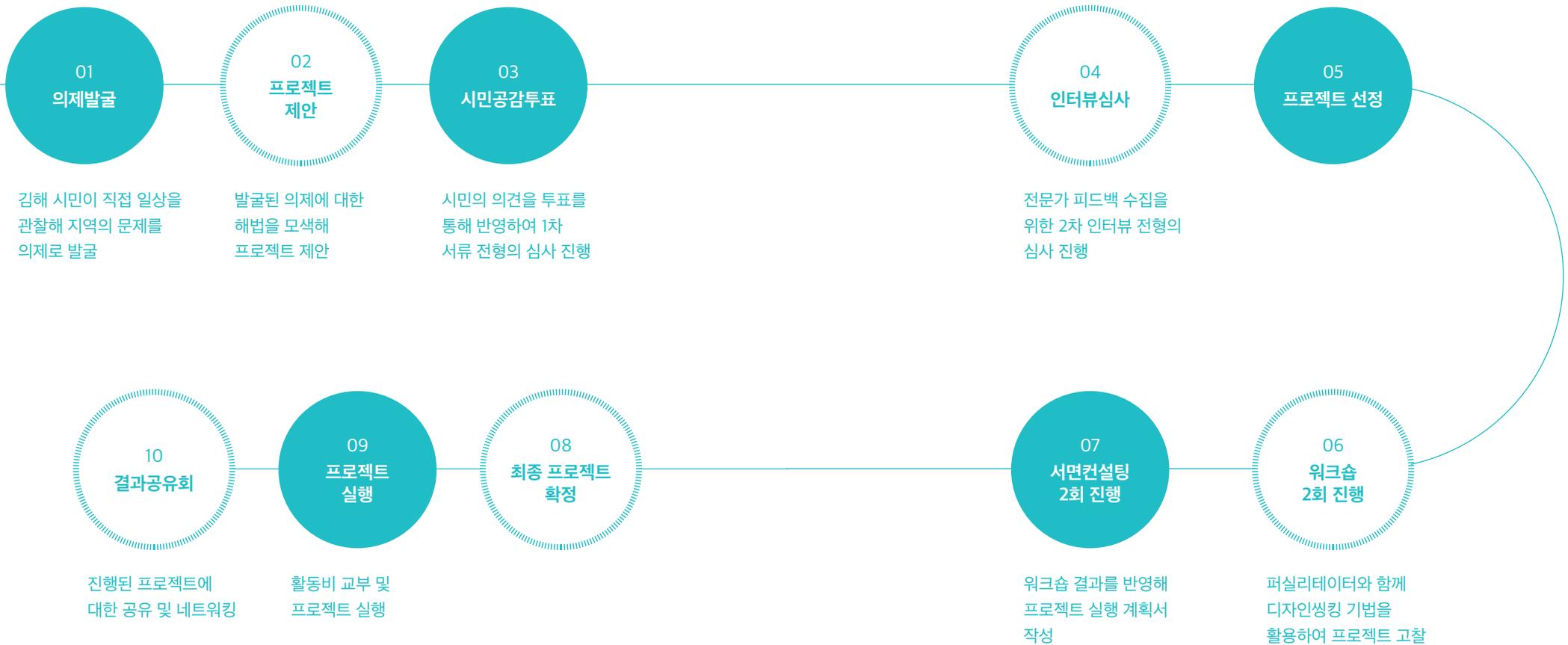
운영주체 및 주요역할

시민그룹 및 시민단체 : 프로젝트 발굴 및 도시문화활동의 주체

전문인력 및 도구의 활용, 지원

- 금바다소리통 홈페이지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운영 체계도입
- 퍼실리테이터 지원
: 시민들의 논의가 실제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적용

진행과정



내가 살아가는 생활권역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

02

[내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김해시 꿀사모

환경지킴이~ 꿀벌! 살리기

대동그린숲

대동숲마을 탄소중립 탐사 프로젝트

삼방팔방

삼방팔방 영화상영회 (할매요~ 같이 영화 함 보입시더)

엠탐조

더 맑은 해반천

한뼘연구소

부모와 자녀가 한뼘 성장하는 소통놀이터

김해시 꿀사모 (꿀벌 사랑 모임)

환경보호 / 생태계 훼손 보호 / 동물권 / 생명권

허성재, 김미자, 서성현, 이복희, 이주란, 허선희, 허은옥, 홍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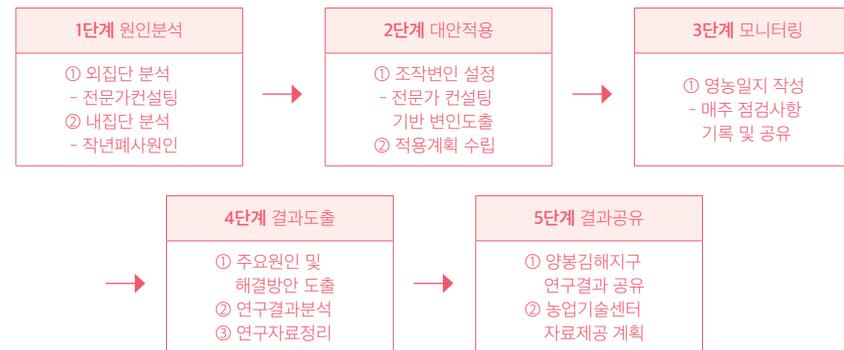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배경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꿀벌군집 붕괴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
2023년 초,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국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 피해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됨

프로젝트 내용

도시양봉의 꿀벌 폐사 주요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제안배경

-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꿀벌군집 붕괴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2021년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면서 해당 문제가 대두됨. 2022년 9~11월 사이에만 10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고, 2023년 초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 피해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경상남도는 꿀벌 사육 기반을 회복하고자 100억 규모 사업비로 농가를 지원하였고, 올해 초 도내 양봉농가의 사육 규모가 평시수준 90%까지 회복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함.
- 이러한 움직임 속에 2022년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도시양봉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들과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양봉을 시도하였으나, 11월 초 전량 폐사되면서 주요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원인분석

- 구성원들은 지난 폐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함.
 - ① 양봉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짐
 - ② 2인 3개조 운영에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되지 못함
 - ③ 방제처리를 하지 않음
 - ④ 별도의 사양액을 주지 않고, 천연 꿀에만 의존함
 - ⑤ 여왕벌을 발견하지 못한 벌통을 장기간(6주) 방치함

세부내용

장소 | 달콤한 농장 대상 | 꿀벌

- 전문가컨설팅을 통한 꿀벌의 생육환경 문제파악
 - (현장방문) 전문가 컨설팅
 - (선진지견학) 김해 양봉지부장 운영농가, 전국양봉대회(개최지:전북 정읍)
- 꿀벌 생육환경 개선계획(안)

	2022년	실험계획
방제	X	O (시기에 적절한 방제 처리 진행)
사양액	X	O
화분떡	X	O
미생물	X	O (2023. 8월 / 2회 완료)
꿀 채취	△ (2kg, 24병)	X
관리주기 /협력체계	2인 3개조, 순환관리	4인 1개조, 합동관리 + (향후) 관리자 1인은 2주 연속하여 참여하면서 관리연계



• 생육환경 개선에 따른 결과치 목표수립

최종결과	2022년			2023년		
	4월	7월말	11월초	4월	7월말	11월초
	7통	17통	전량폐사	3통	14통	(목표) 5통
결과확인 방법	• 잔여 개체수 확인			• 잔여 개체수 확인 • 미생물 투입에 의한 긍정 효과 확인방식(배변검사 등) 체크 필요		

• 실험결과 도출 및 공유

(1) 양봉운영 과정을 일지로 작성하여 SNS에 지속적으로 공유

☞ 도시양봉-김해(<https://m.cafe.naver.com/ca-fe/kimhaebee>)

2023년 8월 양봉 내검정보

일자	구분	6-1	1	2	2-1	3	7	4	4-1	공통 및 다음주 중간점검 사항
6월	영양벌	*								7시~10시30분 내검
	신란	*	0	0	0	0	0	0	0	공통-속살만 10호방제(5/5)
	왕대	다수								사양/확본/이산호염소 (2개월 지속)/소금/생수
	특이 사항	왕대 다수/ 다음주 출방 확인바람	산란 좋은 / 양호							

(2) 지역사회 도시양봉 학습 및 확산을 위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인쇄하여 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결과공유의 시간을 가지고자 함

기대효과

- 도출된 실험결과를 축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관, 단체에 제공하여 꿀벌군집 붕괴현상에 대한 데이터 마련
- 양봉농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꿀벌키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져서 시민의 참여 확대를 기대
- 자연, 꿀벌과 인간의 상호 순환적이며 유기적인 생태계 이해를 통해 실천적인 시민 참여의식의 전환점 제공

“꿀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상황에서만 인간과 꿀벌이 공존할 수 있음”

결과 및 변화

1. 결과

23년 4월 말 3통으로 시작하여 10월경까지 14통 양봉을 이끌어냈으나 현재 3통만 생존하여 12월 월동 목표 5통을 달성하지 못함.

2. 참여자의 변화

- 꿀벌 생태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됨.
-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환경 친화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의 계기점을 제공함.
- 무차별적인 농약 살포가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과 개인 및 사회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깨달음.

자체평가

꿀벌 집단붕괴현상에 대비하여, 벌들의 면역력 강화 및 과학적 양봉으로 집단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하였으나, 현재 3통이 생존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판단됨.









김미자

- 김해시에서 실시하는 양봉교육을 zoom 온라인으로 받았으나 실전 도시양봉은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였다. 그러나 팀원들과 여러 차례의 컨설팅을 통해 모르는 사항,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양봉을 경험해보며 조금씩 양봉과 꿀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서성현

- 하우스 딸기를 키우고 있다. 벌이 사라지면 채소, 과일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해준다.

이주란

- 벌들의 부지런한 모습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꿀벌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웃과 일상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다.

이복희

- 기후변화, 농약 살포의 문제점 등 환경변화에 의한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모두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허은옥

- 텃밭의 꽃에 모인 벌들을 보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니 예전에는 몰랐던 고마움이 느껴진다. 자연의 순환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허성재

- 실전 경험과 전문가 컨설팅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 있게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 높일 수 있다. 환경 지킴이 꿀벌이 멸종을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홍은경

- 벌들이 너무 귀엽다~!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대동그린숲

탄소중립 / 환경보호

차승현, 이수정, 정미정, 홍수영, 김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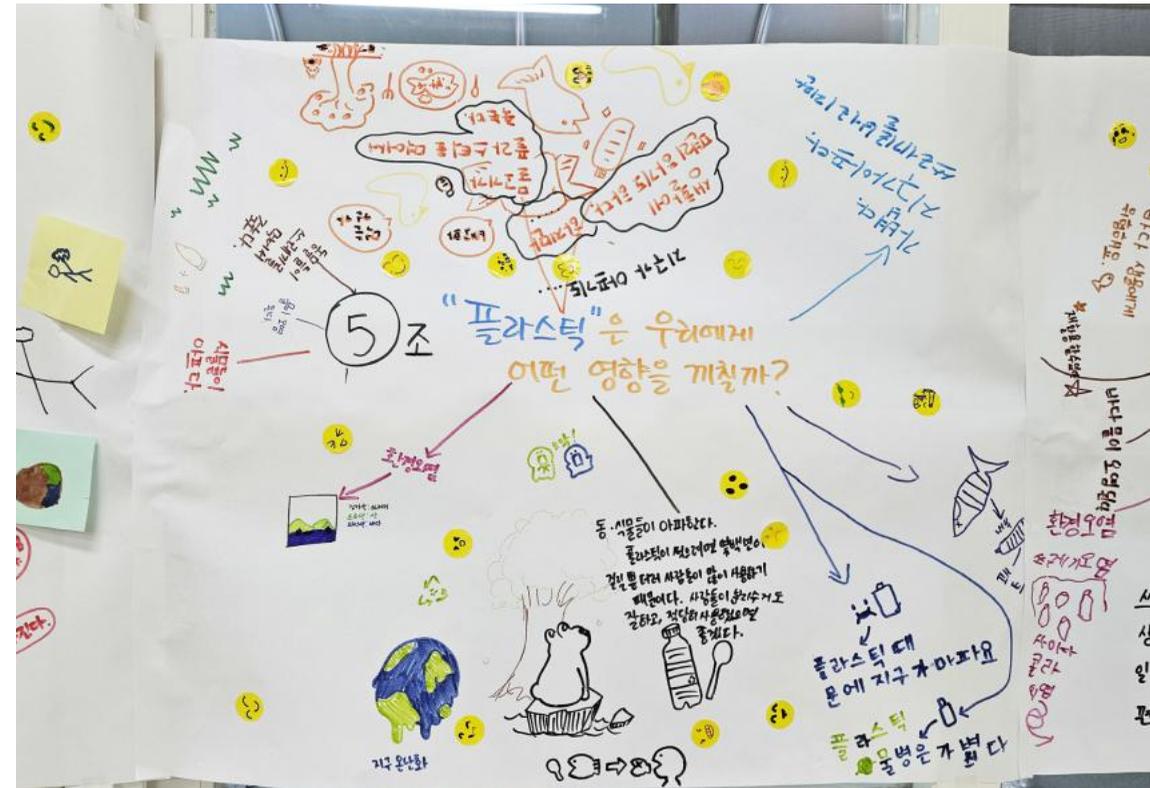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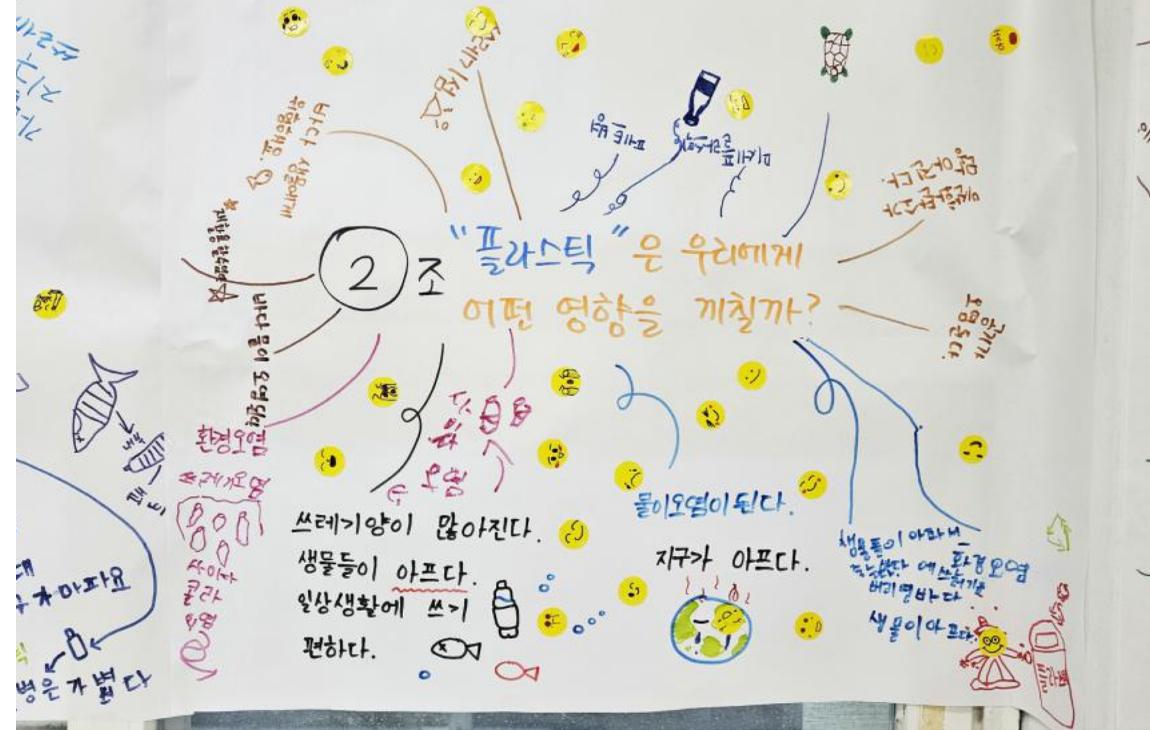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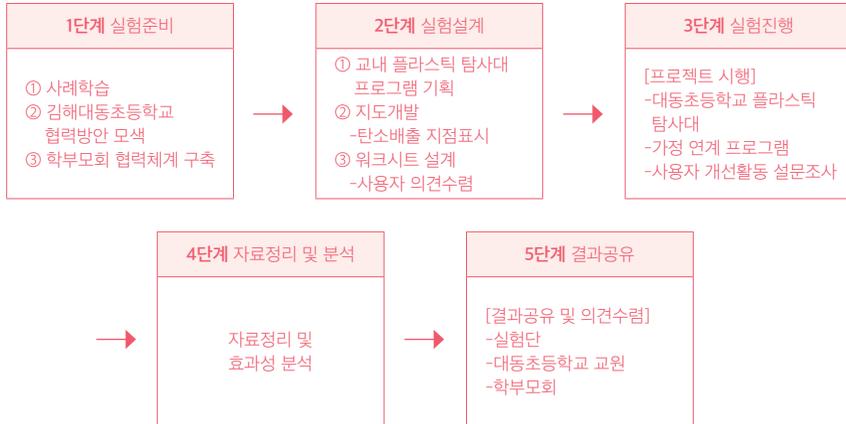
프로젝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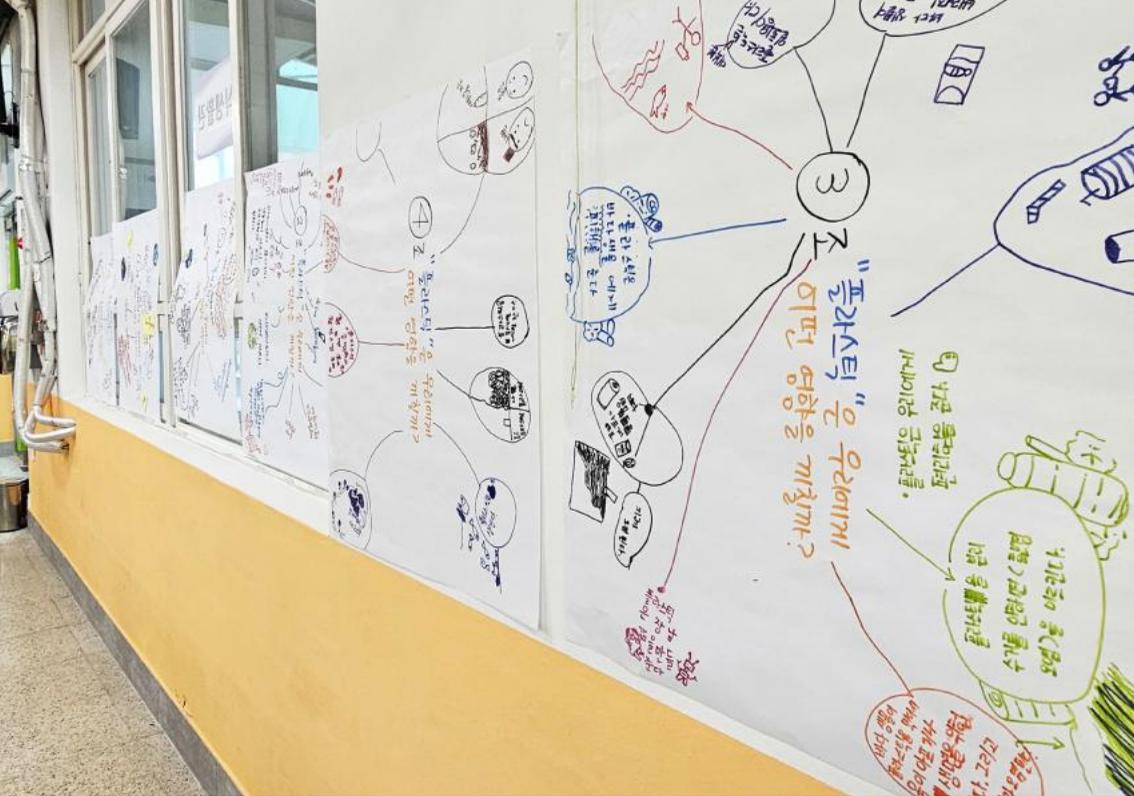
프로젝트 배경

기후변화는 한 가정의, 한 학교의, 한 마을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
아이들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지식위주의 환경교육은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점이 있음

프로젝트 내용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방안 마련





제안배경

- 김해대동초등학교는 학급수 6학급의 소규모 학교로, 산과 논, 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있음.
- 기후변화가 한 가정의, 한 학교의, 한 마을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인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됨.

환경교육에서의 지식과 실천 차이

-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합니다. 좋은 재료에 텃밭에서 자라 막 수확한 채소까지... 하지만 아이들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알면서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무 생각 없이 버립니다.
- 아이들을 위한 교실에는 항상 밝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교사가 없는 교실조차도 켜져 있는 컴퓨터 화면과 TV화면, 모두 켜진 형광등으로 밝게 빛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가설설정

- 이는 지식위주의 환경교육, 환경의 심각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교육이 아이들 스스로 환경을 대하는 태도나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지, 친환경 생활습관 등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동시에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 방안이 요구됨.

- ① 학교/가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공간/시설은 어디일까? (실태파악)
- ② 어떻게 바꾸어볼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대안탐색/기대효과 확인)
- ③ 적용해보니 어떠한가? (대안적용)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초등학교 일대
대상 | 김해 대동초등학교 교원, 학부모 및 학생

01 학교/가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공간/시설은 어디일까?

[학교에서...]

- ①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일상생활의 실천방법에 대해 재미있게 학습
- ② 학생(가칭. 플라스틱 탐사대)들이 직접 학교 내 탄소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 시설 등을 찾아 지도에 표시

[가정에서...]

- ① 각 가정에 배부된 워크시트 가이드에 따라 가정 내 탄소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시설을 찾아 기재하고, 체크리스트에 표시 (학교로 제출)

02 어떻게 바꾸어볼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학교에서...]

- 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지도를 다 함께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도출해 토론 진행
- ②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학생들이 발굴한 탄소배출 지점과 대안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실험단의 컨설팅 의견을 더하여 학교에 개선제안

03 적용해보니 어떠한가?

[학교에서...]

- ① 제안한 의견 중 학교에서 채택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대안제품 (재료)을 가이드와 함께 제공, (가능하면 학생들 함께) 개선활동 진행
- ② 개선활동 이후에 사용자들의 후기와 소감을 수렴 (설문조사 시행)

[가정에서...]

- ① 각 가정에서 회수한 워크시트와 체크리스트를 분석하고, 가정의 상황에 맞는 친환경 대안제품을 가이드와 함께 배부
- ② 개선활동 이후에 사용자들의 사진, 후기와 소감을 수렴 (설문조사 시행)

기대효과

- 환경교육에 있어 학교, 가정이 개별적인 교육주체가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하는 주체로 연결됨.
- 아이들이 실제 삶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게 됨.

결과 및 변화

1. 결과

플라스틱 탐사대를 통해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확장했으며, 48명 중 31명의 실천의지를 볼 수 있었음.

2. 참여자의 변화

- 구성원(68%)들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주체가 되어, 개인이 아닌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됨.
- 실제 아이들이 플라스틱을 알아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음.

자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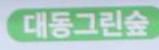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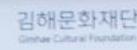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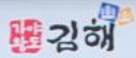
- 환경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당연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 실천하고자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 공동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교, 가정으로 이어지는 범위의 확대를 경험하게 되었음.
- 지속적인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탄소중립이라는 문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시 조성사업

을 가꾸는

꿈샘교육

우리마을 지킴이 - 플라스틱 탐사



차송현

- 지구의 소중함과 환경의 위급함을 느끼고 있었으나 막연한 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플라스틱 탐사대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수정

-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사실 번거롭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습관을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는 제 모습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중 한 명이라도 관심을 두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대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영

- 평소에 분리수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아주 좋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정

- 실제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홀하게 여겼던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김수선

- 내 아이가 지금 자라는 이곳이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장소와 같은데 나의 9살 시절의 환경과 내 아이의 9살이 보내는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방심하다간 남아있는 환경도 사라질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삼방팔방

고령인구 / 노인상호돌봄 / 유대감 강화

김은숙, 김성하, 방소영, 정주연, 장선기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배경

김해시 삼방동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지로

고령인구가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

지자체와 기관들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외출이 잦아지고, 노인 간 상호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프로젝트 내용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소통, 새로운 짝꿍 만들기 기회 제공 "삼방팔방 골목상영회"





제안배경

- 김해시 삼방동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지로 고령인구가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 삼방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김해시민들이 삼방동을 떠올리면 '어두움'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두드러짐.
- 2021년 도시문화실험실에서 '삼방동은 어둠다'는 시민들의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써 『삼방팔방 동네미디어』를 기획, 진행한 바 있음.
- 올해 도시문화실험실에서는 지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보고자 함.
- 전국적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노인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70%가 만성질환, 사회적 격리로 인한 우울증, 치매 등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음.
- 물론 지자체와 기관들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외출이 찾아지고, 노인 간 상호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삼방동 마을 안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어둡고 메마른 정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세부내용

장소 | 김해 삼방동

대상 | 삼방동에 거주하면서 문화에 소외된 어르신 30명

“삼방팔방 골목상영회”

- 목적: 외부 활동이 제한된 삼방동 노인분들을 위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제공해 짝꿍을 만들어 드리고자 골목상영회를 개최하려고 함.
- 내용
 - ① 일시: 월 1회, 총 2회 골목영화관 개최
 - ② 장소: 삼방동 어딘가
 - ③ 방법: 영화관을 못가시는 삼방동 어르신들을 위하여 영화관이 아니지만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영화관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함. 영화를 관람하면서 간단한 다과(팝콘과 음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예정

기대효과

-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되어 이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신이 사는 마을(삼방동)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결과 및 변화

1. 결과

날씨의 영향으로 어르신들이 집밖으로 나오시질 않아 남감한 상황이 벌어짐. 기대했던 것에 비해 참여도가 낮아서 정확한 결과를 논의하기가 어려움.

2. 참여자의 변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자체적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됨.

자체평가

- 이번 프로젝트는 의도하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보지 못함.
- 너무 우리 위주의 생각으로 진행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며, 좀 더 어르신들과 라포를 형성한 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반성이 됨.
-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참여 전단계인 모집 단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



WETTER BAND 최영민	최영민	
WETTER BAND 메이즈	정지훈	
WETTER BAND 가차	제지호	
WETTER BAND 드림	최진혁	
예진선구	김다운	김우은 조수지 한혜수 박지나수지 한혜수 박지음
서진선구	김경태	조희진 백갑찬 1집찬
주인선미 최현	민진수	
조선소 최현	문정대	서영삼
목포고 정미	박종근	
라디오 스타	김효준	
MBC 음악 PD	정영섭	
베스킨 마스터	정산용	
	최사	박정찬
	간호사	황영훈
음금성 최사	한이진	
목포고 방송반 최사		
윤연		
윤연		
이현		
3월/4월		
7월/10월		



김은숙

- 참 쉬운 일은 없다. 삼방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놀이 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보고 싶었으나,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결과적으로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 반성하게 된다. 앞으로는 어르신들 및 참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김성하

- 쉽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어르신들께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었다.

방소영

- 좋은 기획이었으나, 한두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쉽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정주연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각했던 것 보다 어르신들께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다양하지 않음을 몸소 느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함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공감하고,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하지만 소중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선기

- 앞으로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시도가 쌓여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삼방동이 되길 바란다.

엠탐조

환경 / 하천 생태계
이정선, 유정훈, 이조안



프로젝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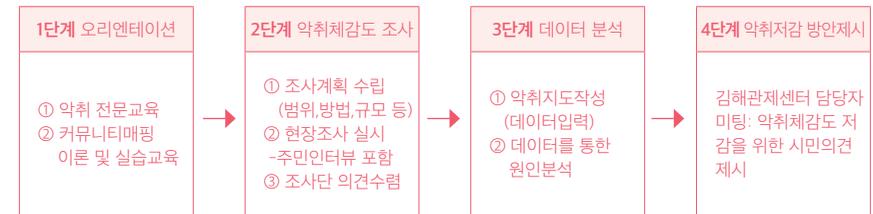
프로젝트 배경

김해의 대표적인 도심 속 친수공간 '해반천' 악취문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눈에 보이는 수치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로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악취문제 민·관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프로젝트 내용

해반천 악취체감도 조사 및 악취지도 작성
(지자체에서 해반천 악취저감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





제안배경

- 해반천은 김해시 북부동에서 발원하여 수가동(장유 인근)까지 흐르는 인공천(11.5km)으로, 김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산책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도심 속 친수공간임.
- 사실 해반천은 2000년대 초까지 만해도 생물이 살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검은색의 물이 흐르는 죽음의 하천이었으나, 2004년부터 김해시가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수변 식생을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함. 현재는 400여종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완전히 탈바꿈함.
- 하지만 복원사업 이후에도 해반천의 악취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까지도 이를 해결하고자 우수토구(합류식 하수도의 관 내에 과도한 양의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악취를 체감하고 있음.
- 이번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해반천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세부내용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 일대

대상 | 시민조사단 및 팀원

[1단계] 시민조사단 오리엔테이션

① 시민조사단 모집

- 팀원을 중심으로 해반천 조사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김해시민 모집

② 악취 전문교육 실시

- 악취에 대한 객관적 표현지표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악취관련 전문교육 실시

③ 커뮤니티 매핑교육 실시

-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공간적·지역적 단위의 사회공동체 또는 공통적 관심 및 가치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 현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활용한 정보수집의 방법 교육

※ 시민조사단 대상 집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팀원들이 해당 교육에 참여하고, 시민조사단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2단계】악취체감도 조사활동

① 악취체감도 조사활동 계획수립

- 사전답사를 통해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시 등의 계획수립
- 악취체감도 조사항목 구성(예시)

조사 항목	악취강도 ① 0도: 무취(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 ② 1도: 약간 느낌(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약간의 냄새를 느낌) ③ 2도: 보통 냄새(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 ④ 3도: 강한 냄새(쉽게 감지할 수 있는 냄새, 병원의 크레졸 냄새 수준) ⑤ 4도: 극심한 냄새(아주 강한 냄새, 여름철 재래식 화장실 냄새 수준) ⑥ 5도: 참기 어려운 냄새(건지기 어려워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은 수준)
	악취유형 <input type="checkbox"/> 유기용제 냄새 <input type="checkbox"/> 타는냄새 <input type="checkbox"/> 고기 굽는 냄새 <input type="checkbox"/> 하수도냄새 <input type="checkbox"/> 축사냄새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민 인터뷰	악취 발생시간대 <input type="checkbox"/> 새벽4~6시 <input type="checkbox"/> 오전6~8시 <input type="checkbox"/> 오전8~10시 <input type="checkbox"/> 오전10~12시 <input type="checkbox"/> 오후12~4시 <input type="checkbox"/> 오후4~6시 <input type="checkbox"/> 오후6~8시 <input type="checkbox"/> 오후8~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불쾌감 경험여부 • 악취 발생 빈도 (1달 평균 ~회) • 해반천 악취커튼 설치 전후 악취 개선정도 등

② 악취체감도 현장조사 실시

- 조사구간(예시)

집중구간	삼계정수장 ~ 봉황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확장구간	봉황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 연지공원

- 조사시간 : 저녁 6시~8시 (*기압이 낮아 공기가 확산되지 않는 저녁시간에 진행예정)

- 조사방법(예시)

- 악취 체감도 조사 및 리트머스 검사 실시
- 악취발생 특정지점에 대한 전문 수질검사 (경남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③ 데이터 분석

- 수집한 악취 체감도 데이터로 악취지도를 작성
- 주요 악취발생의 공간분포도 표시, 악취발생의 특성분석

기대효과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성된 악취지도를 토대로 해반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더 빠른 대응과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더불어 악취저감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구역 설정, 우선순위 검토 등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가능함.
- 해반천 악취 체감도 조사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당 의제와 관련한 경험, 우려사항 및 통찰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진행과정

- 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악취가 나고 있는 지점들을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주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함.
- ②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
 - 주변에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음
 - 특히, 연지고 근처에서 악취가 심함
- ③ 해반천의 각 다리지점을 거점으로 감분교, 해반교, 화정교, 관찰교, 구산교 등의 위치에 리트머스 종이로 1차 수질검사를 진행함.
- ④ GH, NO3, NO2, CL2, KH, PH 6개의 항목으로 확인한 결과, 하류로 향할 수록 탁함의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남.



결과 및 변화

- ⑤ 1차 리트머스 종이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의심되어 수질검사 기관에 채수 작업 통한 정밀 검사를 의뢰함.
- ⑥ 정밀 검사를 통해 염소이온, 황산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아연, 총대장균 등이 발견됨.
- ⑦ 이러한 결과는 하수처리와 생활하수의 우수관 방출이 악취의 원인 중 하나로 야기됨을 의심할 수 있음.
- ⑧ 악취문제는 복합점임으로 의심되는 원인이 파악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반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예정임.

1. 결과

- 흐르는 하천인 해반천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에 대한 악취체감도 조사 실시
- 악취지도 작성을 통해 악취가 심한 구역 파악
-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수질검사 결과를 통해 악취 원인에 대한 단서를 발견
- EM 흙공 던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함

2. 참여자의 변화

- 본 프로젝트뿐 아니라 김해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관찰할 것을 다짐함.
-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나치던 주민들도 엠탐조의 탐구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지속적으로 해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탐구하고 싶어함.

자세평가

- 문제 해결을 위한 팀원들의 적극적인 해반천 탐방과 리트머스트지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물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문가의 조언과 채수검사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어 해결방법에 대한 제시가 가능해짐.
- 환경이라는 주제는 광범위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결과 도출이 어려웠음. 그러나 김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웃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성취감이 높음.
- 팀원들 역시도 해반천(환경)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 프로젝트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게 됨.

익숙지도 만들기 Project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유정훈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지방하천 수질관리에 대한 현장 탐방 및 활동으로 해반천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해반천 뿐만 아니라 현재 비교적 열악한 신어천까지 잘 정비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조안

평소에 해반천을 산책하면서도 해반천의 시발점이 어딘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몰랐다. '더 맑은 해반천' 프로젝트를 통해 김해시에서 '노력하고 잘 관리하고 있구나'를 느꼈다.

이정선

도시에서 생활하면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야하므로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Balance를 맞추어야 하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문제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공유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피부에 닿아있는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탐색하며 문제점이 있으면 늘 고민하는 것이 나만의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한뼨연구소

문화예술

김서우, 김진승, 최경미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배경

명작 동화 속, 무조건 착해야만 하는 순종적인 공주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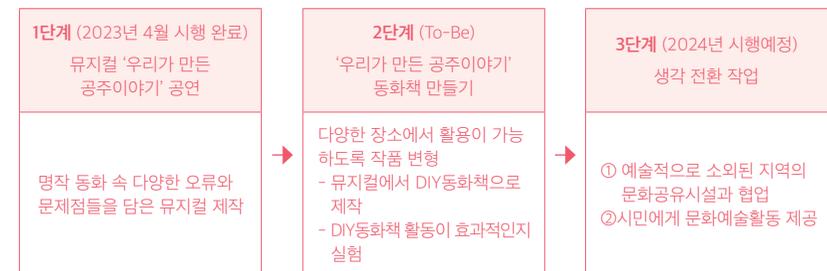
슈퍼맨처럼 뭐든지 해내야만 하는 완벽한 왕자들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성향이나 지향점을 나누는 것이 아닌,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생각 전환이 필요함



프로젝트 내용

'우리가 만든 공주'로 동화의 또 다른 결말 제작하기





제안배경

- 낮에는 문화예술강사로 초·중·고등학교에 출근하며 저녁에는 극단 한뼘연 구소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는 워킹맘. 일이 끝나고 나면 딸아이에게 동화책 한 권 읽어주는 것이 힘이 됨.
- 여유시간이 생겼을 때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그리고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놓쳤던 양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막막함. 단순히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맞벌이 부부·워킹맘·워킹대디라 일컫는 모든 가정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됨.
-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딱딱한 훈육이 아닌 예술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됨.
- 소통의 방법으로 다섯 살 딸아이에게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와 같은 명작 동화를 읽어주었는데 이후 딸아이가 "내가 올면 요정 할머니가 나타날까?", "엄마, 나도 왕자님처럼 결혼하고 싶어"라는 말을 하게 됨. 이 동화들은 여성이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만 강조됐던 시기에 쓰인 작품으로서 여전히 3~7세 아이들에게 입문 동화로 자리 잡고 있음.
- 이런 동화를 읽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겨, 초등학생 3~5학년 아이들에게 자문을 받고 청소년들의 생각도 반영한, '우리가 만드는 공주 이야기' 뮤지컬을 만들게 됨.
- 2023년 04월 16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우리가 만든 공주이야기' 뮤지컬 공연 초연을 진행함.
- 김해에는 김해문화의전당 등 여러 문화기반시설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협업하여 공유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또한, 온 가족이 예술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시민의 창의력을 키우고 재미와 행복을 느끼며 문화를 균등히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뮤지컬 공연의 경우 많은 비용과 큰 규모의 공연장비가 갖춰진 문화시설이 필요해 다화에 걸쳐 시민에게 예술 활동을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음.
- 이에 적은 예산과 공간에서도 활용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변형할 필요를 느낌.



장소 | 김해문화재단 시설 이용

대상 | 김해서부장애인지립센터 장애인

예술 작품 구성 방향

< 무조건 착해야만 하는, 순종적인 공주들 >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 신데렐라 또한 시련에 부딪히지만 ‘마법의 힘’이나 ‘왕자의 구원’이 없으면 스스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자기 주도권을 상실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도 백설공주도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괴롭힘을 그냥 다 참아내는 게 마음씨가 착한 걸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은 동화에만 있는 것인지, 가정에서 훈육이라는 말로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이가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생각해보게 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착함이란 무엇인지 생각의 전환점이 된다.

< 슈퍼맨처럼 뭐든지 해내야만 하는, 완벽한 왕자들 >

동화 속 여주인공의 삶을 구원해 줄 ‘왕자’는 필연적 요소이다. 여기서 왕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주를 구할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를 갖추고 있으며, 멋진 외모, 매너까지 지닌 ‘완벽한’ 인물로 등장한다. 이렇게 슈퍼맨처럼 척척 해내는 초인으로써 무엇이든지 해내는 모습은 남성에게 강박을 주며, 이 때문에 ‘슈퍼맨 콤플렉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공주도 공주지만 왕자도 진짜 힘들었겠다. 맨날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힘든 처지의 공주들을 구해야만 하잖아.” 작품 속 유일한 남자 어린이 ‘준승’은 질문을 던지며 완벽해야만 하는 왕자의 고충을 토로한다. 세상에 무결한 사람은 없으며 각자가 존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서는 왕자가 다른 사람 눈에는 훌륭해 보여도 내적으로 수많은 고민을 하는, 그저 한 명의 인간임을 말하고자 한다.

<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 >

“애들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다.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남자, 여자, 왕자, 공주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자기 적성에 맞게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거란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성향이나 지향점을 나누는 것이 아닌,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할 때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음을 시민에게 전한다.





주요 내용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라 요...” 노래를 부르며 고무줄놀이를 하는 ‘혜운’, ‘은진’, ‘수현’. 세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은 ‘준승’은 “신데렐라는 왜 가족의 구박에 늘 참기만 해?”라는 의문을 제시한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다른 공주들의 대응 방식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은진이 “우리가 이야기를 바꾸는 거 어때? 가만히 왕자의 입맞춤만 기다리는 공주는 되지 않기로!”라고 하며 이야기를 바꿔 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어 네 아이는 폐지와 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모아 놀이터를 궁전으로 꾸민 후, 본인이 원하는 역할을 맡아 극중극을 진행한다. 이 극중극은 동화의 원작을 재현하는 동시에, 극에서 빠져나와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여 이야기가 바뀌는 식으로 전개된다. 아이들은 ‘우리가 만든 공주’로 동화의 또 다른 결말을 만들어 내며, 이야기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하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막을 내린다.

※ 극단 한뼘연구소는 궁극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기반시설과 협업하여 공유시설이 활성화되고 온 가족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 예술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적 로드맵을 설정하였음.

<p>1단계 (2023년 04월 시행완료) 뮤지컬‘우리가 만든 공주이야기’ 공연</p> <p>① 동화 속 ‘공주님’의 다양한 오류와 문제점들을 담은 뮤지컬 제작 ② 김해문화의전당 ‘불가사리2023 프로젝트’ 시행하여 2023.04.16.(일) 초연</p>

<p>2단계 (To-Be) ‘우리가 만든 공주이야기’동화책 만들기</p> <p>① 지역 주민이 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② 전문공연장비시설이 없는 공유문화시설에서도 시민들의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든 공주이야기’ 작품을 뮤지컬에서 → DIY동화책으로 제작 ③ 제작된 DIY동화책 활동이 효과적인지 도시문화실험실 사업을 통해 실험 ④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공연관람이 어려운 해당 시설의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이번 ‘도시문화실험실’프로그램 진행 시 해당 장애 인복지시설 어린이 청소년을 참여자로 하는 방안 검토</p>

<p>3단계 (2024년 시행예정) 예술적 소외된 지역의 문화공유시설과 협업, 시민에게 문화예술활동 제공</p> <p>① 김해시 읍면동 지역의 거점시설 및 문화공유시설 방문 및 지원사업 활용 방안 모색 ②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게 뮤지컬, DIY동화책 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p>
--



기대효과

- 기존의 명작동화 속 공주이야기 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질문을 통해 문제의식을 갖게 됨. 이후 토론 과정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음.
- 문화를 균등히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함.
- 김해시 핵심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읍면동 단위의 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공유시설과 협업하여 시민의 예술 활동의 장이 마련 가능함.

결과 및 변화

- 기존의 공연장에서 일반 관객과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자폐장애인 및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김해문화의전당 시청각실에서 영상시청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 더불어 기존의 공연관람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시도함.
- 장애인의 창의성과 자아성찰을 담은 동화책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문화교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관심과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자리를 마련함.

자체평가

- 기대했던 변화와 실제 진행 후 나타난 변화 사이에 많은 일치점이 있었음.
- 평등, 주체성, 다양성 등 '우리가 만든 공주이야기' 동화책이 담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동화작가로 참여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관람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작은 울림을 퍼트림.
- 전시라는 문화교류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 간의 관심과 이해도를 증가 시킴.



김서우

- 이번 전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주인공들이 만든 특별한 전시였다. 장애인의 창의성과 자아 성찰을 담은 동화책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문화교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관심과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

김진승

-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똑 같은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최경미

- 김해시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더욱 더 마련되길 바란다. 문화 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들(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에게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생기길 바란다.



03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쫄물딱놀이터

문화 다채로움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래

우수관은 바다의 시작!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동물권 / 생명권 / 생명존중 / 더불어 사는 삶

장행영, 이혜진, 김미숙, 김순덕



프로젝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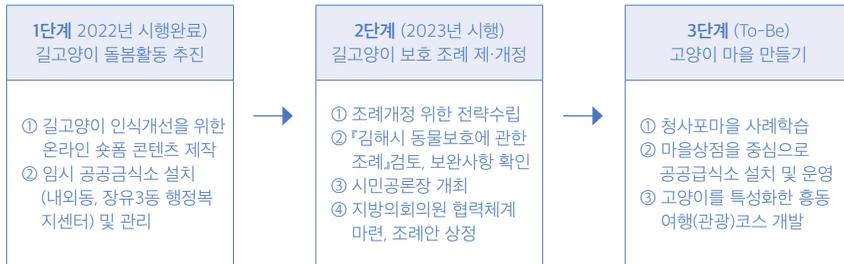
프로젝트 배경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문화조성
조례 제정(개정)이 답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프로젝트 내용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조례 개정(제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개최



제안배경

- 김해동네고양이협회는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과 캠페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 수술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임.
- 2022년 김해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험실 「시민의제형: 길고양이팀」에 참여하면서 길고양이 인식개선 및 돌봄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음.
 - ①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카드뉴스(3종)이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시민들에게 안내됨
 - ② 공공급식소(2개소) 설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앞 공간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하여 공무원, 인근 거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함
- 더불어 개인의 일시적인 돌봄이 아닌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어서 동물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동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타지자체의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들을 접하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으나, 그 과정이나 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였음.
- 이번 실험실을 통해 과연 조례 제정(개정)이 답인가?에 대해 팀원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세부내용

장소 |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실

대상 | 김해시민 40여명

- 김해동네고양이협회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하여 단계적 로드맵을 설정하였음.
-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 ①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전략수립
 - 의원발의, 주민발의 각각의 과정과 방법을 학습하고, 본 조례입법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절차를 수립

- 행정에 정보를 요구하고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 이때에 조례의 개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법 이후 실제로 목적에 맞게 작동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

② 김해시 현행 조례 검토 및 보완사항 확인

- 김해시는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 조례에만 포함하고 있음.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④ 시장은 법 제14조제 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현행 조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조항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재정의 소요와 활동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타지자체에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길고양이의 관리를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는 추세임.

③ 시민공론장 개최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해당 의제에 대하여 공감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공론장을 개최
-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조례가 개정되기 위한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공론장을 기획
- 해당 의제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협상을 이끌어어나가는 기회 마련
- 앞선 과정을 통해 학습,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조례입법 여부 결정



기대효과

- 길고양이 보호 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직면한 문제, 보호의 중요성 등 지역사회 내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됨.
- 길고양이 보호와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역민, 동물보호 활동가, 지역의 보호소 및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공유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시민공론장에서 반대 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보호정책, 지원제도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방안들(조례개정 포함)을 놓고 우선순위를 점검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짐.

결과 및 변화

1. 결과

시의원님의 협조로 2023. 10. 25(수) 김해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공론장 개최

2. 참여자의 변화

길고양이 관련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지만 큰 움직임이 생김. 특히 의원님들과 지자체의 협조가 인상적임.

자체평가

- 김해시 현행 조례 검토 및 보완사항 확인하여 시민공론장을 개최함.
- 해당 의제에 대해 다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을 미리 고민하고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전략 수립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례 제정(개정)의 발판을 마련함.



장행영

-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제정을 위한 공론장 개최]를 이끌어냈다. 다행히 시의원님들의 협조로 김해시의 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공론장을 개최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동물 보호 조례]에 길고양이 관련 조항이 첨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해동네고양이협회 차원에서 공론장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김해문화도시센터의 지원으로 인해 시의원님들과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 고마움을 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유의미한 실험실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활동들이 길고양이가 직면한 문제, 보호의 중요성, 지역사회 내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미숙

-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제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공론장까지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발자국 더 나아갔기에 가슴 뿌듯한 경험이었다.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이런 지원들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

김순덕

-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에 이어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장 개최까지 우리가 해냈다. 조례 제정 혹은 개정을 위해 여전히 남은 숙제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추가로 시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공론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

이혜진

- 이번에는 팀원들과 함께 김해시의 조례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해보았다. 조례 개정... 모두가 처음 진행해보는 일이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해낼 수 있다는 호기로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금씩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면서 자신감과 뿌듯함으로 물든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해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어서 두근거리고 기쁜 나날들이었다. 공론장을 마무리하고는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개인이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 해낼 수 있었다.

쫄물딱놀이터

이주배경 청소년 / 방과후 수업

이희진, 지은정, 하윤정, 천지연, 신수진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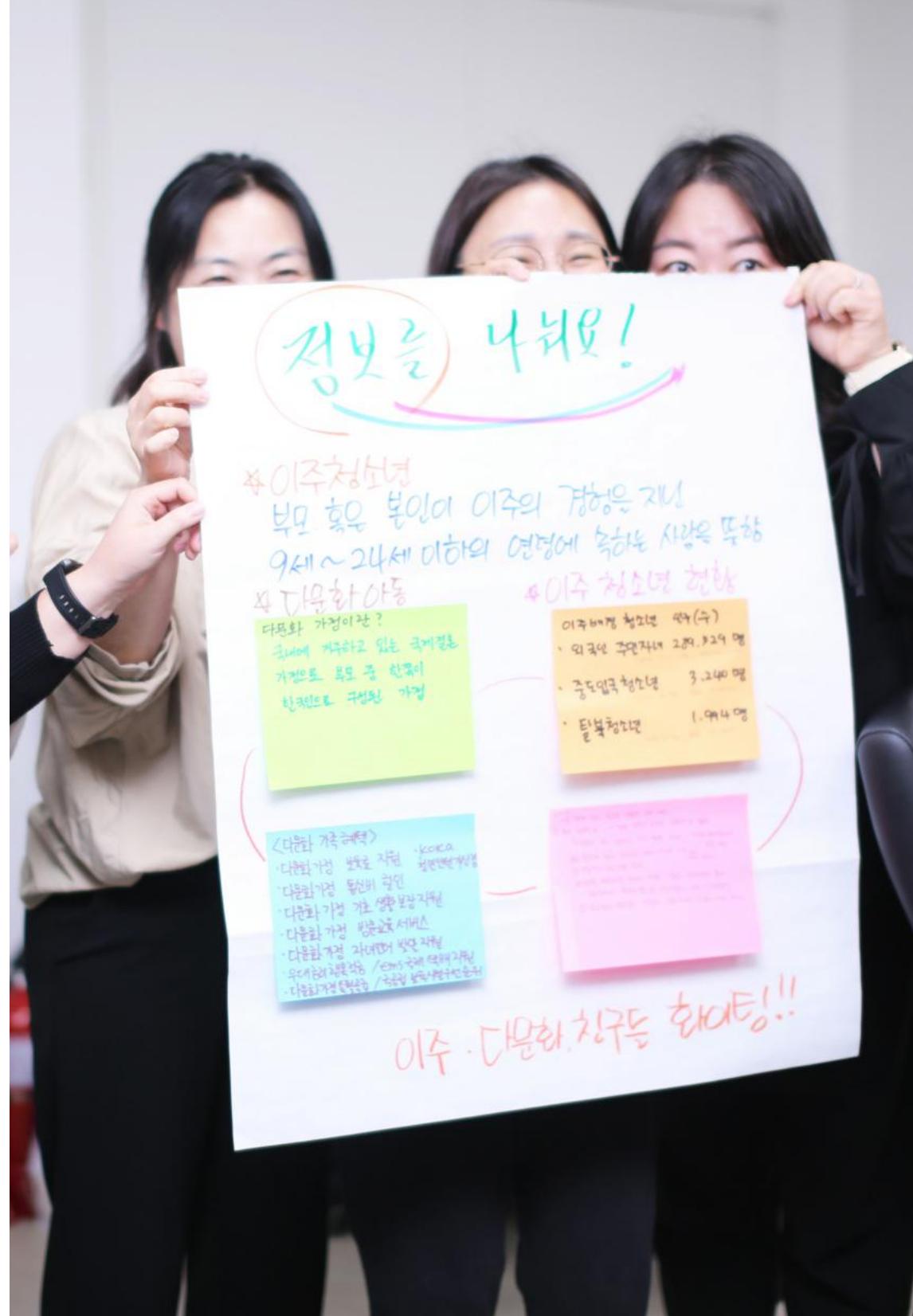
방과후 수업 현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

다문화 학생의 특성/환경을 고려한 장기적·개별적 접근방식과 함께

즉각적·전반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프로젝트 내용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적용



제안배경

- 경남 김해시에는 0세에서 18세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¹⁾ 4,300명이 거주하고 있음. 2021년 4월에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비해 초등학생 25%, 중학생 244%, 고등학생 209% 증가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교 부적응문제의 원인과 김해시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올해 도시문화실험실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해보고자 신청하게 됨.
- 특히 이번 도시문화실험실은 김해시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업 현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게 됨.
- 이주민 밀집지역의 교사가 이주배경 학생 지도 시에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임.

『다문화 학생 70%’...수업 진행 버거운 교실 (2023. 3. 12. 경향신문)』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자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다. 둔포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다문화 학생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

이 학교의 추대열 교사(36)는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중언어가 가능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 수업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요즘엔 다문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수준에 맞춰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를 위해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연구 및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으나, 정교사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교육되고 있어 방과후학교 강사가 이를 알고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1)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종도입국·다문화가족 자녀(부모의 국적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둘 중 한쪽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 또한 방과후학교는 대개 1~2교시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해야 함. 다문화 학생의 특성/환경을 고려한 장기적·개별적 접근방식과 함께 즉각적·전반적 접근방식도 필요함.
-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김해시 방과후학교 강사 규모는 301명(2023. 8월 현재)이며, 매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실험실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도구)를 개발해봄으로써 향후 적용 및 확산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함.



소나(Persona)

2023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현실

문화
다채로움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일시 | 10월 19일(목)
10월 26일(목)
11월 02일(목)

시간 | 17:30~20:30

장소 | 김해문화의 전당 회의실
한옥체험관 2층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일대

대상 | 김해시 방과후학교 강사 10명

- 사용자중심의 문제해결 방법론인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과정을 접목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 적용해보고자 함.
- 각 단계별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하여 디자인씽킹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워크숍 과정을 설계, 진행

[1단계] 공감 및 문제정의하기

- 내용: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사,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을 실시함. 또한 발견된 여러문제를 가운데 핵심이 되면서 해결되었을 때에 가장 의미 있는 문제를 선정하여 정의함.
- 대상: 김해시 방과후학교 강사 중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한 적이 있는 강사 / 10여명
- 방법 : 문헌검토, FGI(Focus Group Interview), FGD(Focus Group Discussion)

[2단계] 아이디어 도출하기

- 내용: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함. 이 때 기존에 시도된 방법과 그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부분/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함.

[3단계] 프로토타입 제작

- 내용: 위 단계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실제화함. (예시) 수업시간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신호등 형태의 카드를 제작하기로 함. 카드 디자인 및 문구 등을 논의하여 실물을 만들어 봄.

[4단계] 테스트

- 내용: 인터뷰에 참여한 방과후학교 강사그룹에 실제 수업에 활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토타입과 함께 활용가이드북을 전달함.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 핵심적 활동임.

디자인씽킹의 5단계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테스트-개선의 반복(iteration)을 거쳐 최종 아이디어에 도달하고자 함.



기대효과

- 수업교구를 통해 교육의 진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학생(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더 빠르게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응하게 되고, 강사는 더 복잡한 개념이나 심화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이러한 교구의 개발과 적용은 강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 이는 강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결과 및 변화

1. 결과

- 주변의 아동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네트워크 구성
- 이주배경 청소년들과의 수업시간에 적용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교구 제작

2. 참여자의 변화

이주배경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어려움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다함께 논의하여 학생과 강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자체평가

- 처음엔 하고자하는 의욕만 가지고 시작했기에 교구 제작이라는 내용에 걱정만 한가득 했었음.
- 3차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며 토론하고 의논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소통이 힘든 수업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만족함.



이희진

- 작년의 아쉬웠던 마음만 가지고 덜컥 도전했습니다. 사실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많이 졸였고, 해야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며 도출해 낸 결과물이 너무 맘에 들어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모두 날아간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프로젝트를 이어서 진행해 볼 수 있다면 올해 나온 결과물을 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피드백도 받아 제대로 한번 완성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살려준 우리 담당자 예은 씨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지은정

- 도시문화실현실 사업을 하며 내가 도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인 다문화 아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김해만의 특성이 있는 다문화 아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김해의 상황에 맞춘 우리의 실험을 통해 정의했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수진

- 다문화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느꼈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직접 교구를 개발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윤정

- 김해에 있는 다문화, 이주민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쏘물딱놀이터를 통해 교구를 개발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교육 교구를 통해 이주민과 다문화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배우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 이주민 '압둘'을 만들어 이주민과 다문화 아이가 되어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그걸 토대로 교육 교구인 감정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뜻깊었습니다. 가상이주민 '압둘'이 쏘물딱놀이터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고 즐거웠으면 합니다.

천지연

- 이주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해보며 어려움을 인지하였습니다.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래

환경정화 / 줍깅 / 담배꽂초

김옥진, 어수진, 박지숙, 방미화, 임화영, 전미숙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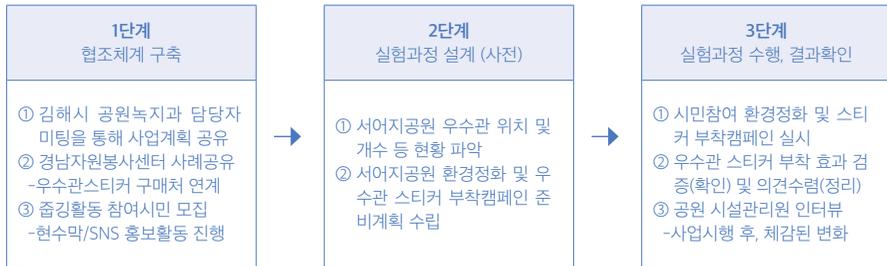
서어지공원의 흡연 및 담배꽂초 투기문제가 심각함

서어지공원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1항1호에 따라
금연구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공원시설 혹은 우수관에 무수히 많은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함



프로젝트 내용

서어지공원의 흡연 및 담배꽂초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제안배경

- 하나래는 진영의 지역민들이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4년째 지역사회 봉사활동(환경정화,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아동 성교육, 미혼모를 위한 자선바자회 등)을 펼치고 있음.
- 실험지로 선정된 서어지공원은 진영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 대표공원으로, 2022년 자연적 요소와 재료들을 추가하여 생태놀이터 공간을 조성하였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친환경 심터로 탈바꿈함.
- 또한 서어지공원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1항1호에 따라 금연구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음.
- 하지만 공원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공원시설 혹은 우수관에 무수히 많은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함.



하나래 회원분께서 줌깡활동 중 촬영하신 사진



온라인에 게시된 서어지공원 모습

-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문제가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음.



우수권 바다의 시작!
우원 하나래
쓰레기 NO!
담배꽂이 NO!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분해되지 않고 잘게 부서진!
작은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
잡은 물고기를 먹는 '사람'
작은
작은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물고기

기대효과

- 지역의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세대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 마련
-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응집력 강화
- 직접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교육의 장이 됨.
- 공원 이용객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강화
- 서어지공원뿐만 아니라 진영읍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으로 연계 기대

결과 및 변화

1. 결과

- 1차 : 서어지공원 스티커작업 실시 / 약 60명의 지역민들이 아이들과 동참 해주심.
- 2차 : 진영중앙초 돌레길 스티커작업 실시 / 약 15명이 참여하였고, 학교 주변이라 캠페인 차원으로 아이들에게 홍보효과 있으리라 기대함.

2. 변화

- 토종고래 상괘이 스티커가 눈에 확 들어와서인지 다들 좋아하셨음. 특히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
-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관에 왜 담배꽂초를 버리면 안 되는지 확실히 인지 시킴.

자체평가

- 우수관에 버려지는 담배꽂초는 분해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때문에 담배필터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의 먹이로 들어가 쌓이고 이는 다시 소비하는 우리들의 밥상에 놓이게 됨.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수관에 버려지는 담배꽂초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음.
-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정말 뿌듯했다는 소감이 많았음.

김옥진

- 우연히 만난 고래스티커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뭐든 찾아보고 두드린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혼자 가 아닌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뭐든 할 수 있고, 뭔들 못할까 싶은 마음이다.

어수진

- 준비하고 기획단계에서는 이게 될까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질까 싶었는데, 웬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관심 가져줘서 놀랐다. 그래서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임,, 좀 더 많은 활동과 그에 따른 장려정책이 뒷받침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활동 뒤에 나아지는 변화가 있는 우리 동네가 되길 바라본다.

전미숙

- 내가 이걸 실천한다고 뭐가 바뀔까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족 모두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변화는 나부터 시작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박지숙

- 우리 동네를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아이들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

방미화

-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고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살기 좋은 진영 만들기는 진영에 관심 갖는 일부터! 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임화영

- 고래스티커 작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작은 힘을 모아 우리를 위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위한 보람된 활동이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버리는 담배꽂초 하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04

도시를
사랑한
우리의 기록





나만의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 김미자** • 꿀벌 관찰하기
- 서성현** • 도심에서 꿀벌이 생산한 달콤한 꿀 재배하기
- 이주란** • 이웃과 꿀벌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 나누기
- 이복희** • 길거리 쓰레기 줍기
- 허은옥** • 제로웨이스트 상품 사용하기
- 허성재** • 일상생활 속에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 홍은경** • 일회용품 최대한 줄이기
- 차송현** • 액체생활용품 비누로 사용하기 • 쇼핑 자제하기 •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기
- 홍수영** • 장을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 친환경 세제·수세미 사용하기 • 플라스틱 용기 사용 지양하기
- 이수정** • 종이로 포장하기 • 생수보다 물 끓여먹기
•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재료를 이용하기 •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공유하고 알리기
- 정미정** • 카페 이용 시 텀블러 지참하기 • 손수건 휴대를 통해 물티슈 사용 자제하기
• 물건 구입 시 장바구니 이용하기
- 김은숙**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쪽이나 입구 쪽 버려진 쓰레기 줍기
• 자연음미로 오시는 어르신들 무료로 커피 나눔하기
- 김성하** • 분리수거 확실하!
- 방소영** • 좋은 행사 있을 때 적극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
- 장선기** • 지역주민과 인사나누기
- 정주연** • 도시의 이런저런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 김수선** • 장바구니 사용하기 •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 일회용품 사용 지양하기
- 유정훈** • 아름다운 김해의 풍경을 사진 찍어 지인들과 공유하기
- 이정선** •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하기
- 이조안** • 해반천 산책, 관리
- 김서우** • 쓰레기 줍기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어린이 청소년의 관심사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 김진승** • 김해시 뉴스 보기 • 선거 참여
• 문화예술을 기획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 최경미** • 통행 시 도보 이용하기 • 꽃과 나무 키우기

- 장행영** •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 • 길고양이와 유기견에게 사료 나눔
•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 길거리 쓰레기 줍기 실천
- 김미숙** •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하기 • 도시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 계절에 따라 바뀌는 풍경 속에서 사진을 찍고,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 김순덕** • 작은 생명을 보살피며 함께 공유하는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법 나누기
• 식물을 통해 구석지고 쓰레기로 방치된 곳을 아름답게 가꾸며 보는 이가 찌푸리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미소를 짓게 하기
- 이혜진** • 길을 걸으며 하늘을 보는 것과 익숙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 이희진** • 재활용하기 • 시민참여에 목소리 더하기 • 김해 행사나 정보를 찾고, 널리 공유하기
- 하윤정** • 김해 적십자 회원가입 • 김해에 있는 노인급식소 무료봉사하기
• 환경실천 탄소제로 공예활동으로 환경지킴이 활동하기
- 지은정** • 김해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감사하기
• 타지역 사람들에게 김해의 문화와 놀거리 등을 소개하고 자랑하기
- 천지연** • SNS에 우리지역 명칭 및 행사사진 올리고 해시태그하기
- 신수진** • 재활용을 잘하기 • 쓰레기 배출 줄이기 • 전기 아껴 사용하기
- 김옥진** • 우리 지역에 관심 갖기 •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기
• 주변 지인들과 따뜻한 정 나누기 • 문화 활동 기획 및 실천해보기
- 어수진** • 마을 구석구석 관심가지기 •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줍기하기
• 위험하거나 경우가 맞지 않는 상황 발생 시 신문고 제보
- 전미숙** • 좋아서 산 물건들 바자회에서 저렴하게 팔거나 나눔하기
• 텃밭 가꾸어 농산물 나눔하기
• 보도블록 불량,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신문고에 기고하기
- 박지숙** • 동네 아무 곳이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 방미화** • 새 것이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나 깨끗한 옷을 아파트주민에게 나누기
•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 안 입는 옷 리폼해서 입기
- 임화영** •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뽐내기(스마일^^) • 텀블러 사용하기

05

2023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하며

2023 도시문화실험실 담당자 한마디

진예은_ 도시문화실험실 담당자

결과자료집을 제작하며 도시를 사랑하기 위해 빛났던 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시도하고, 행동했던 시간들…….
담당자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니 도시를 사랑하기 위한 지난 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숨 가쁘게 달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재미있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도시가 되길 바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열정이 가득 담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올해의 도시문화실험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도시문화실험실 담당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이 있습니다.

①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올해는 매순간 항상 최선을 다해 사업을 대했기에 아쉬움을 한 자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② 다정한 담당자가 되자.

다정한 담당자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다정한 담당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웃음)

내년도에 제가 도시문화실험실을 또 한 번 맡게 된다면, 열심히 고민해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3 도시문화실험실 사업의 종료를 알립니다.

뜨거운 여름, 첫 시작부터 추운 겨울, 마무리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 도시문화실험실 담당자 진예은 올림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시민>을 통해

도시는 성장한다

도시를 사랑하기 위해 고민하고, 시도하고, 행동해주신 덕분에
김해는 오늘도 문화로 특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오래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문화실험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됩니다.

내년도 도시문화실험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 도시문화실험실 COMING SOON.



2023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석철
발행처	김해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 M층 Tel. 055-339-2042 Homepage. 문화도시김해.kr
총괄	김해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이영준
기획진행	역사문화파트 진예은
디자인	디자인오드

※ 본 자료집의 모든 권리는 김해문화도시센터에 있으며 센터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
도시문화실험실
결과자료집

